



오인회 소식

2019년 10월 (제97호)

권두언(卷頭言)

산속을 흐르는 계곡물

산속을 흐르는 계곡물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현상계도 머물지 아니하며,
공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근본에도 머물지 않는다.

또한,
심오한 법어에도 머물지 않는다.

다만 흐르고 있을 뿐……

— 超顯 —

대승기신론 下권 발행 후원요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대승기신론 강의집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 中권이 발행되었고, 이제 下권이 모두 다듬어져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도움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인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下권 발행에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비용은 인쇄제본비 400만원 중 현재 160만원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10만원씩 24분만 후원해주시면 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 안내 (대승 上, 中권 출판 완료, 下권 출판비 400만원 중 현재 160만원)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홀로스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홀로스 공동체 후원 현황 *

- 홀로스 운영 후원 내역
 - 일반후원
 10월 7일 이경남 8만원 / 10월 9일 해연 10만원 / 10월 10일 류창형 3만원 / 10월 10일 선호 1만원 / 10월 21일 여행 1만원 /
 - 공동체학교 후원 내역
 - 일반후원 (기보 100만원, 연주 60만원, 바람 300만원, 지원 100만원, 자명 230만원, 노래 100만원)
 - 월정기후원 (매월 20만원 / 별칭 뒤에 숫자는 월 후원 횟수입니다)
 - 일반 (익명A24, 익명B24, 능주24, 솔내음21, 무유23, 고을34, 서원24, 여몽27, 원님34, 기보24, 썬이24, 허유24, 거위24)
 - 기타 (가온34, 구당34, 자현24)
- <공동체학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깨어있기'가 깨어있게 한다 1

무연 님과의 대담 / 정리 : 영채

이번호부터는 2013~2014년에 걸쳐 오인회에 참여하였던 무연 님과의 대담을 위주로 오인회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소개합니다. 감지에서 감각, '나'라는 느낌에까지 이르러 점차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마음속 현상'으로 보는 과정을 세세히 담았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세요. 이 글을 정리해준 영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연 님은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생각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연히 《깨어있기》 책을 만나게 되었고, 책 속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상"이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합니다. 그후 깨어있기 프로그램 참여와 오인회 모임을 하면서, 내 마음의 상이 내면에서 언어로 나타난 것이 생각이고, 외부의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각하는 것도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어있기'란 단어가 사람을 깨어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인 : 무연 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가 그 주제에 관해서 와 닿는 것 또는 자기를 살펴보다가 올라오는 통찰이나 혹은 불분명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을 서로 심도 있게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따로 하신 게 없으실 테니까 오늘은 계절수업이나 깨어있기를 하고 돌아가서 책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얘기를 해보시죠.

무연 : 깨어있기는 아직 깊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감지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지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가 잘 안 되네요. 저는 먼저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원근감의 차이라든지, 색깔이 다른 사물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느낌이 어떻게 다르게 오는가를 느껴보려 했습니다.

월인 : 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무연 : 감지라는 것에 대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으로 제가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인 : 우리가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대폰을 잡으며) 이런 것을 잡았을 때 차갑다 매끈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그건 사실 생각입니다. 이름이 붙은 것이니까요. 그런 느낌 말고 생각 이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 이것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의 느낌이라고 정의를 하지요. 내적으로 구별되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쪽(정면) 방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와 이렇게(측면) 볼 때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분명히 다르죠? 여긴(정면) 가까운 벽이 있고 이렇게(측면) 보면 멀어지고 벌써 공간감이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 앞에는 흰 벽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이쪽은 문이 있고 유리와 가려지는 나무를 커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나하나 경계 지어 보는 것은 우리가 이름 지어서 본다고 하고, 딱 봤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오는 것은 다르지요. 느낌이라는 것은 전체가 통합되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짓는 것입니다. 경계를 짓지 않으면 느낌은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함양에서 매일 아침 개 산책을 나가는데 감동이 개 까미와 누렁이 개 태풍이가 있습니다. 까미는 온몸이 새카맣죠. 그런데도 우린 거기다가 귀, 눈, 얼굴, 목 이렇게 이름 붙여놓았잖아요. 까미를 딱 보면 사실 온몸이 그냥 하나로서 느껴지는데 귀와 눈과 목 이렇게 이름 붙여놓아서 그 부분을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느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때 까미는 그냥 한 마리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얼굴 부분을 딱 보고 그냥 얼굴 부위를 경계 그리면 그 부위 전체가 딱 하나의 느낌으로 오는 것이지 귀 따로, 머리 따로, 눈 따로, 코 따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작동시키면 어때요? '귀가 따로 있군, 눈 따로 있군, 코 따로 있군.' 하고 여기는 거예요. 분별된 이름이 붙은 느낌들이 와서 저것은 하나야 이렇게 하는 것과, 이름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전체로 다가와

하나로 느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오는 느낌, 이것을 우리가 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한 대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느껴지는 것, 예를 들어 휴대폰을 만질 때 이(중앙) 부분과 이(테두리) 부분을 만질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차이가 느껴질 때 우리가 느낌이 다르다고 하죠.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느낌’이에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구별되는 느낌이라 하며, 그것을 우리가 감지(感知)라고 정의 내리는 겁니다.

무연 :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도 구별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한번이라도 과거에 경험을 한 것이라는 거군요.

월인 :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되어서 구별 되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뭐니까? 항상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연 : 생각을 빼고 보면 대체로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만, 과거에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들도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월인 : 새롭다는 느낌이에요?

무연 : 네.

월인 :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익숙한 감지예요.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컵’ 하면 ‘아, 컵은 무엇이야.’ 하고 정의를 내려놓고 컵이란 이름에 고정된 느낌이 붙은 게 있어요. 이것을 변하지 않는 ‘죽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 느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느낌 말고 컵이라고 이름 붙은 것을 빼고 지금 들어오는 자극에 관심을 쏟으면 끊임없이 변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 뭐가하면 살아있는 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컵을 보는 순간 사실 감각적인 자극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컵은 이런 거야.’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외의 다른 느낌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는데도 정해놓은 것 이외의 것은 주의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이름 붙여 놓은 그 정의로부터 떨어뜨려놓고 보니까 고정화시켰던 느낌 외의 다른 것들이 풍성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새롭고 풍성하게 느껴지죠.

감지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감지와 죽어있는 감지. 오인회 소식지 과월호를 보면 힌지 인터뷰가 나갔을 겁니다.(오인회 소식지 25호~28호) 힌지 인터뷰를 보면 표현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뜻입니다. 살아있는 감지와 죽어있는 감지. 죽어있는 감지는 완전 고정화되어서 ‘컵은 이런 거야.’라고 딱 붙여버린 고정된 느낌이에요. 그 고정된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떼어버리고 나면 고정된 느낌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들이 드디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주의를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풍성하고 새롭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감지 연습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익숙해요, 늘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풍성해요, 신선해요, 새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선해요, 새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감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아요, 변함없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감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죽어있는 감지도 컵이라는 이름이 떨어지고 나서 느낌으로서 파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지라는 건 똑같지만 그 죽어있는 감지를 계속 보다보면 드디어 이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주의를 그 외의 것에도 가면서 점차 풍성하고 신선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죽어있는 감지만 발견한 사람도 연습을 계속 하다보면 풍성한 감지가 와 닿기 시작합니다.

무연 : 생각과 이름을 빼고 그렇게 사물을 보는 연습을 했고요. 또 글씨 같은 것 있잖아요? 책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생각과 이름을 빼려고 해도 자동으로 읽히더라고요. 생각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월인 : 네. 바로 이름과 생각으로 가버린 거죠. 글자 자체가 그 기능이니깐요. 계속 연습하면 생각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글자는 아직 하지 마시고, 사물과 식물을 하신 다음에 동물들을 해보세요. 동물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감지를 하세요. 사람의 전체적인 감지를 하시다가 사람 얼굴을 하세요. 사람 얼굴은 또 정말 힘듭니다. 얼굴 표정이 조금 바뀌어도 확확 다가오죠. 『얼굴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우리가 사람 얼굴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약간의 표정의 변화만 가지고 그것을 캐치한다는 것은 그 얼굴 표정의 미미한 변화에 다 감지가 쏠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턱턱 감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글씨를 하세요. 글씨는 제일 어려우니 맨 마지막에.

무연 : 사람도 일부러 감지로 보려고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한 물어있던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월인 : 천천히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조금씩 하세요.

무연 : 알겠습니다.

월인 : 감지에 대해 연습하면서 다른 의문 나는 것이 있나요? 새롭고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 말씀하셨던가요? 그것도 역시 감지, 어떤 느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만 떼고 감지로 살아가도 구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풍성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죠. 감지로 살아가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구분을 다 되죠. 그래서 일상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다만 생각을 써야할 때는 생각을 끌어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아예 감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머릿속이 그냥 가벼워요. 왜냐하면 감지는 지금 이 순간의 느낌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생각은 미래와 과거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연결된 것들을 흔들어 놓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떠오르면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이 다 흔들려요. 그런데 느낌은 최소한 한 덩어리로 지금 이 순간의 느낌에 집중하게 되요. 그래서 매우 단순하고 편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다 구분이 되죠. 구분을 못하면 불편할 텐데 감지는 더 면밀하게 구분이 됩니다.

타오 : 선생님, 그러면 감각에서는 의타성(依他性)이 없는 거네요.

월인 : 감각은 상이 아니니까 없지요. 마음 속의 상만이 의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감각도 일종의 기준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감각적인 기준을 타고난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의 기준은 450~790THz 사이에 어떤 주파수 진동을 감지해내는 것처럼.

타오 : 그러니까 각각 기관의 특성을 바닥에 깔고 있는 건가요?

월인 : 그렇지요. 기준, 그 특정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도 엄밀히 말해서는 기준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여기서는 일단 내버려 두고, 마음의 상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걸 감지라고 하자 이것입니다.

성암 : 감지로 살아가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선입관 없이 사물을 본다는 것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월인 : 두 가지죠. 선입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적인 측면의 선입관이라면 아주 고정되고 딱딱한 것이고, 즉 생각을 떨어뜨려놓고 느낌에 고정된 것 우리가 죽어있는 감지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감지로 살아가면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많이 떨어져서 보고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감지라고 한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다 하겠지요.

성암 : 감지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입관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훨씬 부드럽고 균형 감각이 있다고 할까요. 대부분의 갈등은 선입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월인 : 마음의 상을 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성암 : 특히 사람들 사이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갈등은 대부분 그런 선입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직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그런 선입관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간혹 알고 지낸지 오래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선입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월인 : 내적으로 투명한 사람들이 있죠. 많이 걸리지 않고요.

무연 : 내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은 타고나는 기질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환경적으로 살면서 형성되는 겁니까?

월인 : 타고난 측면도 작용할 테고요. 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꼭

수련한다고 하지는 않아도 자기를 살피는 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내가 밖을 보는 구나.'를 무의식 중에 터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꾸 자기가 투명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래서 혜능(慧能)선사 같은 분은 나무를 잘라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도 금강경 한마디를 듣고 '아, 저거구나.' 하고 5조 홍인선사를 즉각 찾아가 길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혜능(慧能)이 살아가면서 나무 짐만 지고 살았더라면 그 말이 와 닿지 않았을 텐데 자기를 살피면서 살아왔으니까 그 말이 탁 와 닿아서 진리를 찾아 떠났지요.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땀나무와 식량을 충분히 장만해놓고 스승을 찾아 떠났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무꾼이었어요. 나무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인선사에게 가서 "배우러 왔다" 고 하니 "어디서 왔나?" 고 물어요. "저 남쪽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 "남쪽에는 원시인 미개인밖에 없던데 거기서 온 네가 어떻게 이런 불법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아, 사람은 남쪽과 북쪽이 있는지 몰라도 본질은 남북이 있었습니까?"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홍인(弘忍)이 속으로 뜨끔해서 '이 친구가 뭐 있는데' 하면서 딴 소리하지 말고 방아나 쪼으라고 저 뒤로 보냈어요. 사실은 귀한 친구가 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홍인 밑에서 오랫동안 수련했던 신수(神秀)나 이런 사람들이 질투할까봐 그랬던 것이죠. 치켜 세워주면 안되니까. 신수(神秀) 같은 사람은 본성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뉘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뉘어야만 넘어갈 수 있다. 끊임없이 뉘고 또 뉘어야 한다고 했죠. 몸은 보리수 마음은 명경대(身如菩提樹 心如明鏡臺). 명경대인 마음은 끊임없이 닦아줘야지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혜능(慧能)은 나중에 그러죠. 몸은 보리수가 아니고 마음도 거울이 아니다(菩提本無樹 明鏡亦無臺). 본래 무일물, 어떤 물건도 없는데 닦을 게 뭐 있느냐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혜능(慧能)은 닦아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을 보면서 살아왔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수(神秀)는 점수(漸修), 점차점차 닦아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고 혜능(慧能)은 돈오(頓悟) 즉각적인 깨달음을 말한 것입니다.

늘 자기를 살펴오고 있던 사람들은 뭐 열심히 어떤 절차대로 수행하기 보다는 통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연습을 하든지 간에 그 의미를 살펴보시면 되요. 우선 자신한테 어떤 느낌이 다가오면 그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결국 통찰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찰해내는 것이거든요. 통찰이라는 것이 하나로 통괄하다 할 때 통(洞)자란 말이에요. 찰(察)은 살펴보는 거고. 그런데 원래 우주는 한번도 나눠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컵이 손잡이와 본체와 받침이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손잡이와 본체와 받침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마음 속에 손잡이라는 지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잡이 달린 것이 많잖아요. 문 손잡이, 자동차 손잡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딱 보고 손잡이 닮았네 하면 벌써 경계를 지어서 손잡이라고 분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체라고 하고 밑바닥은 또 약간 구별되니까 이것은 받침이라고 하고. 이렇게 원래 컵은 둘도 아닌 하나인데 마음속에 경계를 지어서 따로따로 본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각의 기능입니다. 생각이란 것 자체가 이렇게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찰은 드디어 이 나눠진 것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구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눠진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물체가 하나구나.'를 보는 것이 통찰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속에서 통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별 자체가 없는 무심 속에서는 통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나뉘는 것이 없는 하나라는 것을 분별을 통해서 드디어 통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분별하고 나누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경험적인 느낌 없이 그것을 해버리면 철학이 되기 쉽습니다.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 통찰로 이어지는 거구요. 됐습니까?

그러면 무연님은 다음 주에는 무슨 연습을 해보실 겁니까?

무연 : 감지연습을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순서대로 사물과 식물을 해보겠습니다.

월인 : 감지연습을 사물과 식물, 그다음에 동물까지요?

무연 : 동물은 안 기르니까 사람으로 해보겠습니다.

월인 : 사람 얼굴은 하지 마시고 몸체를 먼저 하세요. 움직이는 몸이나 얼굴은 약간의 변화에도 자꾸 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오케이 그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대승기신론(80) - 2013년 10월 1일 강의 월인(越因)

오늘은 의장문(義章門)의 진여문에 들어감 부분을 강의합니다.

復次顯示從生滅門則入眞如門.

부차현시종생멸문즉입진여문.

다음은 생멸문(生滅門)으로부터 진여문(眞如門)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다.

所謂推求五陰色之與心, 六塵境界, 畢竟無念. 以心無形相, 十方求之終不可得.

소위추구오음색지여심, 육진경계, 필경무념. 이심무형상, 시방구지종불가득.

이른바 오음(五陰)의 색(色)과 심(心)을 추구해보면 육진경계(六塵境界)가 필경 생각이 없으며,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 시방(十方)으로 찾아보아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오음(五陰)은 오온(五蘊)을 말하는데, 온(蘊)은 모여서 축적된 것입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에 “五蘊皆空度一切苦厄 (오온개공 도일체고액)”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이라고 했습니다. 오온(五蘊)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인데, 그 중에서 색(色)은 바깥 세계를 의미합니다. 공(空)과 색(色)으로 나누어 말할 때, 분별되는 현상세계가 바로 색(色)이죠. 수(受)는 감각기관, 상(想)은 들어서 내면에 쌓이는 것, 행(行)은 의도나 의지, 식(識)은 그로 인해 얻어지는 앎입니다. 정리하자면 오음(五陰)의 색(色)은 외부의 현상 세계이고 수상행식(受想行識)은 마음의 세계인데, 이를 색(色)과 심(心)으로 나누어 원문에서 표현했습니다.

육진경계(六塵境界)는 여섯 가지 먼지라는 의미로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말하는데, 이는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접촉하는 경계, 환경, 대상입니다. 경계는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것이고,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세계는 분별되고 나뉘지는 세계이므로 육진경계(六塵境界)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색(色)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왔습니다. 색(色)과 심(心),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 색성향미촉법이라는 모든 경계를 색(色)이라고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색수상행식의 색(色)입니다. 수상행식(受想行識)은 그 색(色)에 접촉해서 작용하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크게는 현상세계인 색(色)과 마음의 세계인 심(心)으로 나뉘는 것이죠.

관련해서 불교의 근경식(根境識)에 대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근(根)은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말하고, 이 감각기관들이 접촉하는 대상인 경(境)이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입니다. 그리고 그 접촉으로 인해 생겨나는 앎이 식(識)입니다. 의(意)라는 감각기관이 마음의 흔적인 법(法)에 접촉해서 생겨난 앎이 의식(意識)이에요.

원문에서 육진경계가 마지막에 가서는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六塵境界, 畢竟無念.) 염(念)이 없다고 했죠. 대승기신론에서는 염(念)과 심(心)을 분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心)은 마음의 본질 자체나 전반적인 마음의 세계를 의미하고, 염(念)은 그 중에서도 분별되어 나누어지는 마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분열과 분별 이후의 마음의 파도, 즉 망령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염(念)은 분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색(色)과 심(心)을 모두 추구해보니 육진경계(六塵境界)가 무념(無念)이다.’라는 말은 분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책상, 책꽂이, 의자처럼 분별된다고 여겨지는 사물들은 모두 색(色)의 세계인데, 이 색(色)의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분별은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각기관과 마음으로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내가 보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여기지만, 바이러스나 강아지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의 분별을 하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분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계만이 진정한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주파수로 만들어진 에너지 인간이 있다면 그는 단단한 벽도 뚫고 지나갈 수 있겠죠. 주파수로 이루어진 존재한테는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결코 자신이 경험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감각기관에 맞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육진경계(六塵境界)가 무념(無念)이라는 말은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분별하고 나누는 염(念)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의지, 즉 에고(ego)입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마음이 분별해낸 마음의 흔적이 자기를 유지하려는 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염(念)이 에고이며 의지입니다. 부딪혀서 뭔가를 해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철학적 사유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뉴턴은 이 우주를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갈지 다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정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은 마음이 개념화시켜놓은 것뿐이지 자연에는 의지도, 비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마음이 나누고 개념화시켜서 '이것은 내 자유의지의 실현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의지라는 것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자연에 대드는 게 인간의 의지죠. 그런 의지의 표상인 에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돌아가겠죠. 그게 '무위(無爲)의 위(爲)입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것. 더 이상 나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주변 전체를 돌아보며 모자란 것을 자연스럽게 채워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말이죠. 내가 만들레라면 씨앗을 만들어 씨앗이 없는 곳에 날릴 뿐이에요.

염(念)이라는 것은 마음의 일이고 모든 분별은 마음에 있다고 했으니 이제 마음을 살펴봅시다.

원문을 보면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 시방(十方)으로 찾아보아도 끝내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방(十方)은 팔방(八方)에 위·아래를 합한 열 개의 방향으로 온 천지를 말해요. 마음 안의 세계를 살펴보면, 찾을수록 경계는 없어지고, 분리되고 독립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도 무념(無念)입니다. 즉 분별의 기반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염(念)을 찾아보세요. 마음속에는 생각이 많잖아요. 이 카메라를 보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으니 염(念)이 존재하는 건데, 여기서 '마음속을 살펴보면 염(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없다고 말할까요? 지금 다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좀 전에 본 카메라를 찾아보세요. 보이나요? 카메라를 상상하거나 그려내지 말고 좀 전에 봤던 카메라를 찾아보세요.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작정하고 마음속의 염(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찾으려 하면 마음속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그냥 밖에 주의를 쏟고 있으면 경계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경계는 없어져요. 분리되고 독립된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도 무념(無念)이다, 분별의 기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如人迷故, 謂東爲西, 方實不轉.
여인미고, 위동위서, 방실부전.

마치 사람이 방향을 몰라 동(東)을 서(西)라 하지만 방향 자체는 실제로 바뀌지 않는 것과 같다.

동쪽을 향해 서서 서쪽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동쪽이 서쪽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동쪽은 동쪽일 뿐, 실제로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마음 안을 아무리 찾아도 형상(形相)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으로 찾고, 분별하고, 시비를 가려도 마음에는 하등 변화가 없으니, 그는 여전히 마음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 자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를 띤 파도에서 아무리 물을 찾아봐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파도 속에 이미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모든 모습과 현상 속에 이미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을 서라 하지만 방향자체는 실로 변화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의 모습을 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 뿐, 파도 자체가 이미 물의 표현입니다.

마음속에서 마음 자체를 찾아보세요. 파도칠 때 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이 어떤 모습을 지녔을 때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마음의 모습에는 생각, 느낌, 감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마음 자체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실 때 마음 자체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마음이 모두 쉬어버리면 마음 자체를 볼 수 있는 '나'라는 것도 사라지므로 마음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무심(無心)이나 무념(無念)상태를 잠시 맞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마음 자체'라기보다는 '마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심(無心)을 체험했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나'라는 것이 있었다는 뜻이고, '나'가 있었다는 것은 마음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파도가 투명한 파도의 모습을 잠깐 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마음 자체를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경험은 '나'라는 파도가 생겨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홀로스 공동체 소식

1. 깨어있기 마스터과정 10월 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10월 마스터과정은 '다양하게 감각하기', '낮설게 보기'를 공부했습니다. 일요일 연습과정에서는 청계산에서 다 같이 점심식사 후 근처 대형마트에서 과일, 생선, 사람 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감각하기 연습이 진행되어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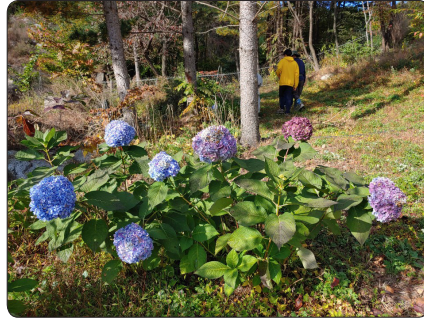
2. 다음사회 연구소에서 통찰력게임



지난 12일에는 삶의 예술학교와 다음사회연구소 대표를 만나 각 공동체가 현재 진행해나가고 있는 근황을 나누고 함께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3일에는 강화도의 다음사회연구소에서 연구원들 및 관련 분들과 통찰력게임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몇분이 게임의 깊이를 느끼고 진하게 삶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작은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나'로 도약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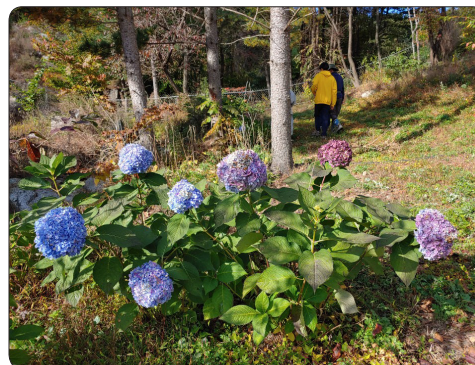
3. 초현님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함양에 나무를 심어보려고 초현님 농장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하얀 자작나무와 다양하게 피는 수국등 많은 나무와 꽃들을 보고 왔습니다. 좀더 진행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 수확의 계절입니다

감과 은행을 따고, 배추를 묶고, 들깨를 타작하고, 청향관 앞마당과 본관 주차장 콘크리트 공사, 새로 난 강아지들 돌보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의 · 도서 구입 안내

1. 영상강의 데이터 목록

영상강의는 USB 메모리에 넣어 제공되며 1강의당 3,000원입니다. 아래 구분은 편의상 한 것으로, 영상강의 데이터는 원하시는 순서, 시간만큼 요청하시는 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목	구분	강의	가격	비고
1	진심직설	전체	총 48강	144,000원	2014.10.28 -2015.6.2
		1강-12강	각 12강	각 36,000원	
		13강-24강			
		25강-36강			
37강-48강					
2	조론	전체	총 52강	156,000원	2017.4.4 -2018.5.15
		1강-13강	각 13강	각 39,000원	
		14강-26강			
		27강-39강			
40강-52강					

. 영상강의 원본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직접 담아가시거나, 외장하드를 보내주시면 저장해서 다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원본과 용량을 줄인 동영상의 가격은 같습니다.)

. 700메가로 줄인 영상강의는 이메일이나 32기가 USB(40시간 정도 수록, 별도 1만원)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2. 도서 안내

구분	제목	가격
필독 도서	깨어있기™ - 의식의 대해부	12,000원
	관성을 넘어가기™ - 감정의 대해부	10,000원
추천도서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권	25,000원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中권	25,000원
	주역, 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 (만화)	10,000원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	8,000원
	푸른 빈 배 (eBook)	7,000원

◆ 구입문의 ◆

. 입금계좌 : 농협 053-12-130081 이원규
문의 02-747-2261

. 홈페이지, 문자,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주문하시면 됩니다.

. 주문하실 때는 주소, 휴대폰 번호, 성함을 알려주십시오.

. 배송료 2,500원(제주도 5,500원)을 합산해 입금해주시시오. (주문금액 10만원 이상은 배송비 무료)